

오늘의 유머

■뛰는 학생 위에 나는 교수

대학생 두 명이 기말 시험 전날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술에 취해 늦잠을 자고 말았다. 뒤늦게 잠이 깨 학교에 갔지만 이미 시험이 끝나고 강의실은 텅 비어있었다. 두 사람은 담당 교수를 찾아가 거짓말을 하면서 사정했다. "교수님 저희가 친구 결혼식에 갔다 오는데 타이어가 터지는 바람에 지각을 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두 학생의 간청에 교수는 다음날 재시험을 볼 수 있도록 약속했다. 다음날 교수는 이들을 각각 다른 교실에 들여보내 시험을 치르게 했다. 문제지를 받아보니 첫 문제는 5점짜리 간단한 단답식 문제였다. 신이 난 학생들은 신이 나 문제를 풀고 시험지를 넘겼다. 그러나 다음 장에는 전혀 준비하지 못한 문제가 적혀있었다. '문제 2. 어느 쪽 타이어였지? (95점)'

■어떤 피고

재판을 하던 중 판사가 피고인에게 물었다. "이봐요, 피고, 내가 여기 지방법원 판사로 있으면서 당신을 벌써 열두 번째나 보게 됐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자 피고가 심드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 참! 판사님이 승진 못 한 게 어디 제 탓입니까?"

■먹는 게 남는 것

초등학교 1학년인 한 학생이 있었다. 자꾸 수학 문제를 틀려 남아서 공부를 하게 됐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물었다. "한 문제만 풀면 보내줄 테니까, 잘 풀어봐." "에."

"10 빼기 5가 뭐지?"

"6이요!"

그러자 선생님이 다시 말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봐. 자 문제를 다시 말해줄게. 사과 10개 중에서 네가 5개를 먹었어. 그럼 몇 개가 남지?"

"5개가 남죠."

"오~ 대단한데, 어떻게 맞췄지?"

그러자 학생이 의기 양양하게 대답했다.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라고 하셨어요."

■달리기

두 친구가 정글을 여행하고 있었다. 갑자기 호랑이가 멀리에서 나타나 그들을 향해 달려왔다. 그중 한 명이 얼른 가방에서 운동화를 꺼내 신기 시작했다. 그

러자 한 남자가 소리쳤다. "운동화를 신고 호랑이보다 빨리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자 친구가 다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호랑이보다 빨리 달릴 수는 없지만, 너보다는 빨리 달릴 수 있을 거야!"

■기다려봐

여자가 예인에게 물었다. "나 말고 판 여자가 몇 명이나 있었어요?" 남자는 답을 피우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자 여자가 토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뭘해요! 나 지금 대답을 기다리고 있던 말이에요!"

남자는 생각에 잠겨 담배연기를 뿜으면서 말했다.

"기다려봐. 아직 세고 있던 말이야..."

■시험문제

초등학교 실과 시험날이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점수를 주기 위해 마지막 주관식 문제를 아주 쉬운 걸로 출제했다. 문제는 '삶은 계란을 먹을 때는 ()()을 치면서 먹는다.'였다. 정답은 소금이었지만, 간장이나 겨자라고 적은 아이도 있었다. 하지만 한 아이의 답안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삶은 계란을 먹을 때는 가슴을 치면서 먹는다'

리빙 센스

아토피 관리 ①

■쿠션, 카펫 사용 자제

매일 사용하는 이불과 자주 세탁하기 힘든 커튼과 카펫은 집먼지진드기의 온상이 될 수 있다. 가급적 쿠션, 카펫, 커튼은 사용하지 않고, 이불은 가급적 자주 세탁하고, 낮에는 햇빛에 말려준다.

■순면 소재의 옷

니트나 화학 섬유는 옷은 피부를 자극하기 때문에 100% 순면 소재의 옷을 입는 게 좋다. 옷을 구입할 때는 딱 맞는 옷보다는 자극을 줄일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가 좋다. 세탁할 때는 세제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군다.

■손톱은 짧게

가려움 때문에 피부를 긁다 보면 상처가 나 2차 감염이 되기도 한다. 손톱은 짧게 잘라 상처가 덜 나도록 하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자주 손을 씻는다.

■적당한 실내 온도

실내온도는 계절에 상관없이 20~22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

함께 풀어봅시다 < 3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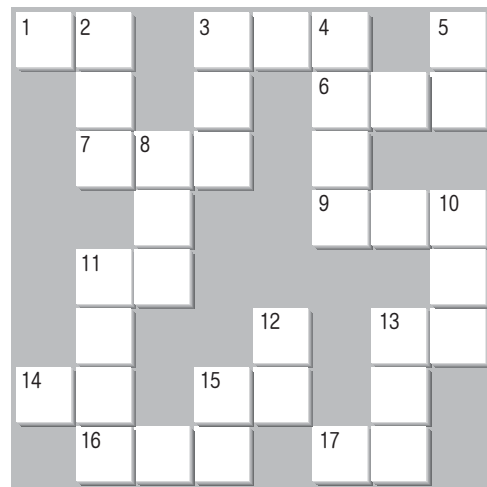
→ 가로풀이

1.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릴. 그 일은 대통령의 ~과 지시로 이루어졌다. → 결심, 3.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적국의 핵 공격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범위 또는 그 전력. 6. 두 수 또는 두 식 사이의 대소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 기호는 '?와 '?'를 쓴다. 7. 한 집안의 가족. 또는 온 가족. 김 씨 ~ 여섯이 한자리에 모였다. 9. 돈이나 물품 등을 지나치게 많이 써서 없애는 일. ~ 추방. ~를 조장하다. 11. 자기만의 견해나 관점. 그녀는 ~이 뚜렷하지만 그의 남자친구는 ~이 없다. 13. 집이나 토지 등을 매각한 값을 여러 번 나누어 치르는 일에서 마지막으로 치르는 돈. 14.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함. 환경 ~에 힘쓰다. 15. 사회적으로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 일반적으로

마흔 살 안팎을 이룸. 16. 바퀴에 홈을 파고 줄을 걸어서 돌려 물건을 움직이는 장치. 두레박, 기증기 등에 이용된다. 17. 뒤쪽의 끝. 또는 대열(隊列)의 맨 뒤 또는 거기에 있는 군인, 차량 등을 이르는 말.

↓ 세로풀이

2. 짧은 시일, 문장력은 ~에 걸리지는 것이 아니다. 3. 한 쌍의 부부와 미혼의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족. → 소가족. 4. 임신, 해산, 부인병 등을 다루는 의학의 한 분과. 또는 그런 병원 부서. 5. 상인이 영업 활동을 할 때에 자신의 사업체를 표시하기 위하여 쓰는 이름. 8.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의 만물에 대하여 가지는 근본적 태도나 견해. 교사는 학생들이 올바른 ~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10. 뜻밖의 긴급한 사태에 쓰기 위하여 마련하여 둔 돈. 여행을 할 경우 무수 일



이 생길지 모르니 ~을 챙겨 두어라. 11.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서로 뒤바뀐다는 뜻으로, 사물의 경중·선후·완급 등이 서로 뒤바뀜을 이르는 말. 12. 목은 한 해를 보냄. ~의 밤 행사가 열렸다. 13. 아기가 자라고 사소한 재미. 그는 ~가 없는 사람이다. 15. 다가를 앞날. 또는 앞으로의 가능성이나 전망. → 미래.



<함께 풀어봅시다 299회 정답>

▲지난주 정답자

김행자:광주시 동구 남동
신주화:광주시 북구 문동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보내시면 매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문예재부

바둑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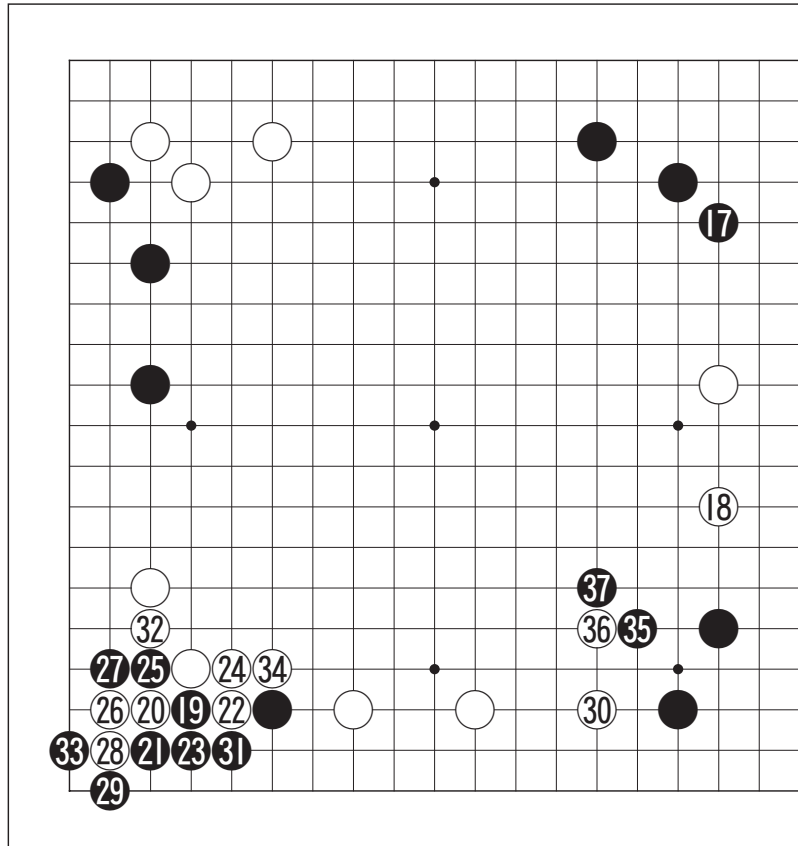
이세돌 5월에도 랭킹 1위

한국기원이 발표한 5월 국내 랭킹에서 이세돌 9단이 1위에 올랐다. 이로써 이세돌은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째 1위를 지켰다.

강동윤 7단이 원성진 9단을 밀쳐내고 6위에 올랐고, 4월 들어 공식대국이 없었던 한상훈 3단은 두 계단 하락한 10위에 머물렀다. 김승재 초단은 무려 11계단이나 수직 상승한 23위에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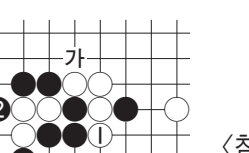
여자 기사로는 조혜연 7단이 40위를 기록하며 유일하게 50위권 안에 들었고, 조준현 9단이 16위, 김일환·김수장 9단은 나란히 44위와 45위를 기록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지사배 전국아마대회 2회전

시니어부 본선 2회전



<참고도>

박성군 7단은 한때 최강자로 군림했던 아마추어 대표기사다. 롯데배와 학초배에서 우승했고 아마국수도 두차례나 제패하여 세계아마대회에도 한국대표로 출전한 바 있다. 최근에는 연구생 출신 주니어 기사들의 위세에 밀려 성적이 저조하지만 그 명성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심재욱 6단은 뒤늦게 빛을 보고 있는 전형적인 대기만성형 기사다. 아마추어들은 대개 나이가 들면서 성적이

'심재욱의 늦바람' 2보(17~37)

白 박성군 7단 (강원) 黑 심재욱 6단 (광주)

되조하게 마련인데 심 6단은 50을 훌쩍 넘기고서부터 오히려 성적이 좋아지고 있다. 2, 3년전부터 최근까지의 활약을 보면 가히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이창호배에서 3위, 작년 전남도지사배 전국아마대회 3위, 전국체전에서도 역시 3위를 차지했다. 우승경력이 없다는 것이 흠인데 과연 이번에 화룡점정의 꿈을 이룰 것인지 기대가 된다.

혹 19로 붙인 것은 상용정성인데 '참고도'의 백 1로 막지않고 그냥 30으로 달려간 것이 이채롭다. 아마도 '가'로 찢어나오는 맛을 경계한 듯한 심6단 특유의 발빠른 움직임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굿모닝 잉글리쉬 <1153> Where is he taking you? 그 사람이 당신을 어디로 데리고 간테요? A: Are you busy tonight? B: Yes, John is taking me out to eat. A: Where is he taking you? B: To chili's. A: 오늘 밤 바쁘세요? B: 네, 존하고 외식을 할 거거든요. A: 그 사람이 당신을 어디로 데리고 간테요? B: 멕시코 식당으로요. * 매리가 지금 어디에서 일을 합니까? = Where is Mary working now? * 존이 자기 사진을 어디에서 현상을 할 건가요? = Where is John having his picture developed? * 존은 내일 어디로 갈까요? = Where is John going tomorrow?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153> なアイディアが必要(ひつよう)ですね。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A: B社では、また新商品(しんしょうひん)を開発(かいはつ)して来月發賣(はつばい)するそうですよ。 B: そうですか。競争(きょうそう)がますます激(げき)しくなってきましたね。 A: うちも他社(たしゃ)にさきかけて開発(かいはつ)しないとイケませんね。 B: 奇抜(きばつ)なアイディアが必要(ひつよう)ですね。 A: B社에서는 또 신상품을 개발하여 다음 달 발매한다고 합니다. B: 그렇습니까. 경쟁이 점점 심해져 오느군요. A: 우리도 타사에 앞서서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군요. B: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開發(かいはつ): 개발 ますます: 점점 激(げき)しい: 심하다, 격하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130> 这是给表姐的。 이것은 사촌누나에게 줄 것입니다 A: 这是给谁的? zhè shì gěi shéi de 작소 誰의 誰의 데 B: 这是给表姐的。 zhè shì gěi biǎojiě de 작소 表의 表의 데 A: 这件礼物是谁送的? zhè jiàn lǐwù shì shéi sòng de 작소 誰의 誰의 데 B: 是爷爷送的。 shì yéye sòng de 작소 爺의 爺의 데 A: 이것은 누구에게 줄 겁니까? B: 이것은 사촌누나에게 줄 겁니다. A: 이 선물은 누가 쓴 겁니까? B: 할머니가 써서 주신 겁니다. 誰 [shéi] 누구 什麼 [shéi] 할머니께 <광주중국어학원(삼우지구 금호대우A 앞) > ☎ 383-1605

한자 이야기 <770> 以暴易暴(이포역포) 씨 이, 사나울 포, 바꿀 역, 사나울 포 이포역포(以暴易暴)는 폭력으로 폭력을 다스린다는 뜻으로, 정치를 행함에 무력에 의지함을 비유한다. 이 상어는 중국 고대 은(殷)나라 말기의 절의지사(節義之士)인 백이(伯夷)·숙제(叔齊)형제가 주나라를 세운 무왕(武王)의 폭력을 비판하는 노래 '채미가(采薇歌)'에서 유래한다. 본래 백이와 숙제는 고죽국(孤竹國)의 왕자였으나, 왕이 죽으면서 아우인 숙제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자 숙제는 형인 백이에게 이것을 양여하였다. 그러나 백이는 아버지의 명을 따라야 한다며 나라를 떠났고, 숙제도 그를 따라갔다. 백이와 숙제는 무왕(武王)의 아버지인 창(昌)에게 의지하고서 찾아갔으나, 이미 죽어 문왕(文王)에 추존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무왕이 아버지의 위패를 수레에 싣고 은(殷)의 주왕(紂王)을 정벌하여 주(周)의 천하를 이루었다. 이에 백이와 숙제는 무왕이 장례도 치르지 않고 은나라를 정벌한 것은 효(孝)와 인(仁)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은에 대한 절의를 지키기 위하여 수양산(首陽山)에 들어가 고사리[薇]로 배를 채우다 죽었다. 죽기 전에 남긴 '채미가'에서, "저 서산에 올라 / 고사리를 캐내 / 무왕은 포악함으로 주왕의 포악함을 바꾸었지만(以暴易暴) / 그 잘못을 알지 못하고 있네 / - 중략 -" 라고 노래하였다. <한여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5월 5일(음 4월 1일 乙丑) 36년생 중인의 협조가 새로운 격이요 매사에 성공하는 형상이다. 48년생 자신 있게 진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60년생 투자는 미루라. 72년생 모든 일에 신중 하라. 84년생 불연이면 애인과 이별도. 행운의 숫자: 21, 25 37년생 관과, 재과, 성과가 우려된다. 49년생 오랜만에 좋은 협조자를 얻고 급진한다. 61년생 흥이 변하여 길이 된다. 73년생 부부간의 의견다툼이 있다. 85년생 모든 일에 신중함을 잃지 말고 아야 손이 줄어 든다. 행운의 숫자: 05, 26 38년생 직업과 재물에 불리한 문제가 발생하니 각별 주의가 요망된다. 50년생 부부사이에 확신이 필요하다. 62년생 어려움은 없으나 지루하다. 74년생 흥과 복이 교차하고 중중하니 기도하고 안정을 취하라. 행운의 숫자: 17, 29 39년생 획기적인 자기노선에서 주변의 협조까지 얻으니 금성협화된다. 51년생 현 위치에서 깊은 마음으로 자기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63년생 할대숙소 절대 실리를 찾아야한다. 75년생 오늘도 평안하다. 행운의 숫자: 12, 30 40년생 신고를 당하는 수도 있다. 52년생 처음부터 자존심을 버리고 화해 쪽으로 모색하라. 64년생 있는 것도 없는 듯이 조심하라. 76년생 천국이면 대는 불만고 상처만 남으니 복을 나누어라. 행운의 숫자: 11, 34 41년생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되는 형상이다. 53년생 점진적인 활동이 확실한 결과로 보일 수 있게 된다. 65년생 걱정을 버려라.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내용이다. 77년생 중증을 잃지 말고 자기 일에 열중하라. 행운의 숫자: 09, 36 42년생 희망의 진행은 계속 된다. 54년생 문서를 쥐고 있는 형상으로 세사가 순조롭다. 66년생 큰 계획으로 일해야 더욱 값진 수확을 얻으리라. 78년생 모든 일에 경이로운 진취가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08, 37 43년생 미리서 신중한 처분을 유지하고 침착하게 살펴봐라. 55년생 고행이 우려된다. 67년생 타인의 중상모략 기만을 만날 우려가 많은 조심이 필요하다. 79년생 많은 조심이 필요하 하라. 행운의 숫자: 07, 40 44년생 지난 과거에 원메이지 말고 새로운 일을 취하라. 56년생 친구에게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라. 68년생 지난 문서를 버리고 새 문서를 읽는다. 80년생 좋은 음식은 이웃과 나누어 먹어라. 행운의 숫자: 14, 38 45년생 외형속속 가내 실속 재검정 하라. 57년생 서로서 이해하면 서로가 득이다. 69년생 내일을 위해서 인내함이 좋으리라. 81년생 일에 강박을 만나는 형상이니 가족 간에 협조해야 극복한다. 행운의 숫자: 03, 45 46년생 생각하지 않은 협조자가 재래하니 적극성을 보여줘야 한다. 58년생 도둑이 예상되니 문단속을 잘하라. 70년생 마음의 변화가 생기니 기도하고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82년생 오늘은 눈을 감고 지내라. 행운의 숫자: 01, 35 47년생 침체는 있으나 실망 말고 진행하라. 59년생 과한 친절과 서투르는 사람의 자기조정을 경계해야 하리라. 71년생 외형은 가능한 방법으로 실리를 찾아서 속속해야 좋으리라. 83년생 오늘도 즐겁으리라. 행운의 숫자: 04, 44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원익약품 062-383-5883